

조용필·이선희·서현 평양공연 ‘부상투혼’

후두염·대상포진 악조건 속 열창
사이, 북측 생각하는 그림에 튀어서
방탄소년단, 일정 때문에 합류 못해
MBC, 5일 오후 녹화 방영키로



1일 평양 대동강지구 동평양대극장에서 '남북평화 협력기원 남북예술단 평양공연-봄이 온다'가 열리고 있다.

13년 만에 북한 평양 무대에 선 우리 예술단이 대상포진과 후두염에 시달리면서도 열창하는 투혼을 발휘했다.

정부지원단 관계자는 예술단의 첫 공연이 열린 지난 1일 방북단 숙소인 고려호텔 남측 기자단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조용필, 이선희, 소녀시대 서현 등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끝까지 아름다운 무대를 만들어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용필 씨가 데뷔 50주년 기념 콘서트를 준비하다 오셔서 후두염에 걸린 상태였다”며 “많이 긴장하셨는지 목에 갑자기 염증이 올라와 고열과 통증에 시달리셨다”고 말했다.

‘가왕’ 조용필의 평양공연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05년 8월 23일 평양 류경 정주영체육관에서 단독 콘서트 ‘조용필 평양 2005’를 열어 기립 박수를 받았다. 그는 오는 5월 12일 열릴 데뷔 50주년 기념 공연 준비로 일정이 빠졌지만, “13년 전 평양 콘서트 때 관객들이 준 감동을 기억한다”며 흔쾌히 정부의 공연 참여 제안을 받아들였다.

정부 관계자는 또 “이선희 씨도 대상포진 후유증이 있었고, 서현 씨도 (공연 당일) 오후에 몸살이 와서 의료진의 진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서현 씨가 ‘공연은 반드시 한다’고 하더라. 다들 부상 투혼을 발휘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밴드 YB도 낮설어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 가수들의 가장 큰 고민은 노래했을 때 객석의 반응이 없는 것”이라며 “그러나 YB가 ‘공연 막판에 눈물 흘리던 할머니와 눈이 마주했을 때 반은 감동이 준비 과정의 스트레스보다 더 컸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리 예술단의 평양공연에 “싸이는 이쪽(북측)이 생각하는 그림에 튀어서, 방탄소년단은 일정 때문”에 함께 하지 못했다고 출연진 섭외를 밝혔다.

합류를 희망했던 가수로 싸이를 꼽으며 “이쪽이 생각하는 그림이 있고 그 그림에 너무 튀는 것 아니냐(란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룹 방탄소년

단 섭외에 대해서는 “일정 때문에”라고 짧게 답했다.

당초 우리 예술단의 명단이 공개되자 일각에서 지금의 대중음악 시장을 반영할 K팝 대표 주자인 싸이와 방탄소년단이 합류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왔고, 실제 정부는 그중 싸이의 합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북측이 난색을 표해 성사되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월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의 서울 무대에 오른 서현의 출연 과정을 예로 들면서 싸이의 불발 배경이 같은 맥락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삼지연관현악단(서울 공연) 때 왜 서현 씨였다. 여러 가수에 제안했는데 저희 조건으로 하겠다는 분이 서현 씨였고 너무 고맙더라”고 말했다. 이어 “조건은 본인 노래를 못하고 삼지연관현악단의 고유 레퍼토리에 맞춰 두 곡을 하는 것이었다”며 “서현 씨 외에 다른 보컬들은 본인 노래를 한 곡 넘어달라는 조건이 있었다. 양측 다 알리었다고 본다. 삼지연관현악단 쪽은 전체 구성한 곡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니 망설일 수 없다고...”라며 싸이도 마찬가지로 북측이 생각한 그림에 맞지 않았다는 점을 예들러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이번 공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준 가수들에게 고마움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삼지연관현악단에서 남측 국민 정서를 반영해 부른 노래를 불렀던 분들, 평양(공연) 경험 있는 분들, 레퍼토리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리스트를 만들었다”며 가수들이 각자의 일정을 어렵게 조정해 참여해줬다고 말했다.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을 마치고 김정은 북한 노

동당 위원장과 만난 레드벨벳은 “(김 위원장이) 첫 번째 공연 날에만 참관할 것 같다면서 악수를 해줬는데 너무 떨렸다”고 말했다.

레드벨벳은 “악수를 할 줄 몰랐는데 영광이었다”며 “그걸 떠나서 북측 많은 분들을 만났다는 것이 더 큰 영광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멤버들은 북한 관객의 뜨거운 호응에도 감격했다고 말했다.

아이린은 “많은 분이 호응을 엄청 잘해주셨다”며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끝날 때 다 같이 노래를 하고, 들어가고 나서도 박수를 쳐주셔서 마음이 이상했다”고 말했다.

솔기는 “마지막에 선배님들과 노래를 부르는데 북측 분들도 같이 부르더라”며 “같이 환호해주시면서 부르는데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게 느껴져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났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5일 오후에 녹화 방송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당초 3일 공연을 중계할 계획이었으나 북측 참석 상황 등에 변경이 생겨 1일 공연을 중계하는 것으로 잠정 논의 중”이라며 “평양 일정이 종료된 뒤 중계 화면 원본을 서울로 가져와 일부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배포한 자료에서 “녹화방송 장비는 조선중앙TV가 제공하고 기술과 촬영, 편집은 MBC가 맡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성추문’ 김생민 “전부 제 잘못”

10년 전 스태프 추행
늦장 대처에 빈축 사



개그맨 김생민(45·사진)이 과거 방송 스태프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시인하고 사과했으나 향후 거취는 밝히지 않았다.

김생민은 2일 성추문 보도가 나오기 약 2시간 후 소속사인 SM C&C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10년 전 출연 중이었던 프로그램의 회식 자리에서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당시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다고 인지하지 못했고 최근에서야 피해 사실을 전해 듣게 됐다. 너무 많이 늦었다는 것을 알지만 그분을 직접 만나 뵈고 과거 부끄럽고, 부족했던 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 드렸다”고 설명했다.

김생민은 그러면서 “저의 부족한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으셨을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무겁고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그 날 제가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저와 함께 일해 주시는 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 드린다”고 글을 맺으며 출연 중인 다수 프로그램에서의 하차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한 매체는 김생민이 2008년 한 프로그램 촬영 후 회식 자리에서 스태프 2명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으며 피해자 중 1명에게는 당시에, 다른 1명에게는 지난 3월 21일 사과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대로라면 김생민과 소속사는 관련 입장과 출연 중인 프로그램을 정리할 최소 2-3주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게 돼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소속사는 미리 문제를 인지하고서도 이날 기사가 터지자 부랴부랴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

해당 사실을 모르고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여러 방송국은 급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할 상황에 처하며 방송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1992년 KBS 특채 개그맨으로 연예계에 데뷔했으나 지난해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김생민의 영수증’으로 전성기를 맞아 최근 다수 방송에서 활약해왔다.

그가 고정 출연하는 프로그램은 KBS 2TV ‘김생민의 영수증’ 외에도 KBS 2TV ‘연애가중계, MBC TV ‘전지적 참견 시점’과 ‘출발 비디오투어’, SBS TV ‘TV동물농장’, tvN ‘짠내투어’, MBN ‘오늘 일래요?’, EBS TV ‘호모 이코노미쿠스’, MTN ‘김생민의 비즈정보쇼’, YTN ‘원 포인트 생활상사’ 총 10개에 이른다. 광고 역시 10여 편을 찍었다.

오랜 기다림 후에 만난 전성기인 데다, 겸손하고 성실한 이미지로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이번 성추문과 관련해 대중의 소극은 더 큰 분위기가. /연합뉴스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역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여행차 바다야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 만만	30 930 MBC 뉴스 50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10 좋은 아침
10	00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40 지구촌 뉴스		00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11	00 제주 4.3 70주년 설민석의 역사특강 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55 UHD 한식의 마음	00 우리가 만난 기억 (재)	05 2018 메이저리그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3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05 생생정보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쇼 55 특독 보원설계 (재)
1	20 팔도발상 스페셜 30 2018 KBS배 전국 하키대회	10 세상의 모든 다큐 (재)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15 가짜! 낭만 고향 (재)	00 뉴스브리핑
3	00 천상의 컬렉션	00 자동공부책상 위키2 30 TV 유치원	05 프리파라 3 35 뽀뽀부 모두야 놀자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55 재보자들(재)	05 UHD 다큐멘터리 3부작 세계의 도시, 과학을 만나다 (재) 55 뉴스콘서트	00 고향견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레피		50 익스트림 서프라이즈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남	00 영재발굴단 (재)
7	00 KBS 뉴스 7 35 제주 4.3 70주년 특집다큐 그날	50 인형의 집	15 전생에 웬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폼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1대 100	5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50 시사기획 창			
10	45 UHD 슈퍼 50 KBS 뉴스라인	00 우리가 만난 기억	00 위대한 유혹자	00 키스 먼저 할까요?
11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허뿔뿔만 재워줘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20 독립영화관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스포츠 다이아리 20 UHD 다큐멘터리 3부작 세계의 도시, 과학을 만나다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왕초보 영어	- 화산섬의 비밀	13:40 성난 물고기(재)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4:3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재)	19:30 EBS뉴스
(일본 료칸 속으로	09:40 장수의 비밀(재)	15:00 호기심 나라 오기도	19:50 극한직업 스페셜
- 2부 건강을 선물하다)	10:30 한국기행(재)	15:15 파프리카	20:40 세계테마기행
06:0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지중해 황금루트
06:20 세계테마기행(재)	(탈교! 죽순부음, 파래 두부무침)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스페인 모로코, 대륙을 건너다)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00 냥장고 나라, 코코몽	21:30 한국기행
07:30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12:00 EBS 정오 뉴스	16:15 용감한 소방재 레이	(시선기행-엄마의 소쿠리 2부
07:45 출동! 슈퍼원스2	12:10 행복천 교육세상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망사리의 꿈)
08:00 당동명 유치원1~2	(미래의 기술 명장을 꿈꾼다	16:45 당동명 유치원1~2(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8:30 허풍선이 과학소(재)	- 경복기계급속고등학교)	17:30 마사와 곰	22:45 우리란 이란가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3:00 다큐 오늘	17:45 띠띠뽀 띠띠뽀	23:55 글로벌 애버 찾아야 삼만리
09:00 몬카트	(물리핀 바닷속 금을 찾아라)	18:00 생방송 특!톡! 보니하니1~4	24:45 지식재널e
0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13:1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19:00 몬카트	24:50 한국역사특선 <살인의 추억>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3일(음 2월 18일 乙丑)

子	36년생 짜임새 있게 관리해야 할 한국이다. 48년생 고통스럽겠지만 아픈 만큼 성숙해지리라. 60년생 임시적인 미봉책은 화를 부른다. 72년생 예견되는 부분까지 관리할 수 있어야겠다. 84년생 차질 없이 예정된 대로 진행된다. 행운의 숫자 : 15, 72	午	42년생 본격적인 궤도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54년생 걸기지는 차지하고 핵심 위주로 다루는 것이 현명하다. 66년생 모순에 빠지지 말자. 78년생 현실을 수용하는 것이 낫다. 90년생 초기에 내린 판단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86, 40
丑	37년생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49년생 행운을 알리는 흥겨운 풍의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61년생 해몽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73년생 물고기가 출연이 변하여 용 되는 형상이다. 85년생 그릇이 커야 많이 담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4, 66	未	43년생 불련해 하는 정황이다. 55년생 한꺼번에 물리는 형태이다. 67년생 길한 징조가 가까이에 다가오고 있다. 79년생 여태까지 쌓아 온 바를 평가받게 되리라. 91년생 뻔하다 알면서도 위태로운 상황을 일부러 저조할 필요는 없다. 행운의 숫자 : 07, 05
寅	38년생 굳은 마음가짐이러면 충분히 견디어 낼 수 있다. 50년생 작지만 소중한 것 있었다. 62년생 절제했을 때 진정한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74년생 가장 적절한 형태의 조건이 보인다. 86년생 희망찬 기운이 계속되는 운로이다. 행운의 숫자 : 30, 80	申	44년생 단순하게 판단한다면 오류를 부를 뿐이다. 56년생 잔술 밭에서 바를 찾고 있는 형국이다. 68년생 함께하는 이외의 호흡이 중요하다. 80년생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응대하는 것이 낫다. 92년생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하리라. 행운의 숫자 : 46, 76
卯	39년생 불련해하면 반드시 틀어 고쳐야 한다. 51년생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인다. 63년생 끝나는 마당에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75년생 악순환의 고리 끊어야 한다. 87년생 절대 간단히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04, 34	酉	45년생 감당하기 힘들다면 부담할 이유가 없다. 57년생 진면목이 드러날 것이니라. 69년생 힘이 들더라도 활성시킴 필요가 있다. 81년생 가치 있는 일에 충실해야 하느니라. 93년생 먼저 상대의 말을 다 들어보아야 할 일이다. 행운의 숫자 : 06, 21
辰	40년생 현안이 성공 여부의 관건이 될 것이다. 52년생 동쪽으로 진행했을 때 능력이 극대화 될 것이니라. 64년생 오랫동안 갈구하여 왔던 힘이 생겼다. 76년생 사소한 것에서 비롯되리라. 88년생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때다. 행운의 숫자 : 47, 86	戌	34년생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수습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46년생 노심초사하며 우려했던 사건이 실제로 터지겠다. 58년생 계속 유지하라. 70년생 역량 부족으로 인해 한계에 도달한다. 82년생 새로운 것이 생기는 기쁨이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69, 01
巳	41년생 기본 마음으로 임한다면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53년생 이전투구 양상을 띠 수 있다. 65년생 이행해야 할 바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뒤돌아보자. 77년생 오해 생기기 않도록 하자. 89년생 적절하지 않으면 미련 없이 버려라. 행운의 숫자 : 95, 70	亥	35년생 광명정대한 자세로 당당하게 임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47년생 대국적으로 보아야 성취할 수 있다. 59년생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71년생 모순점이 보인다. 83년생 길과 속이 짝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6, 3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